



제3회

HDI 인간경영대상 시상식

2017년 12월 21일(목) 16:30~18:30

소노펠리체(삼성동 한국도심공항)



장 만 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한 영 섭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Better people better world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은 상상 그 이상의 것들을 실현해 내며 그것은 교육을 통해 계발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42년 전 리더 양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겠다는 비전으로 인간개발연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새로운 미래 100년을 설계해 나가면서 HDI 창립이념인 『인간경영의 철학』을 실천하는 우수한 기업, 기관의 경영자를 발굴하여 시상식을 만들어 제3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 산업계는 물론 국가 전반적으로 훌륭한 경영자가 배출되고, 그러한 경영자로 하여금 더욱 밝고 아름다운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추진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와 기업 발굴로 미래 세대에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인간 중심의 사회와 조직』을 꿈꾸고 실천하며, 그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배우고자 신설한 인간경영대상에 회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21일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장 만 기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한 영 섭

제3회 인간경영대상에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인간존중의 경영을 실천하신 경영자와 각 지자체를 선정함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직원과 주민을 섬기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신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경영이 날로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인간존중, 섬김의 리더십으로 경영자 본인의 교육은 물론 더 나아가 임직원 교육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으신 수상자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과 사회에 많은 봉사와 기부를 하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년 수상자 중 특별상의 영예를 받으시는 박재갑 이사장님과 상생경영부문의 박성훈 회장님, 가치창조부문의 조태권 회장님은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어렵고 힘든 역경을 딛고 바르고 정대한 기업환경을 만드신 공이 크시어 후배 경영인들에게 큰 귀감을 보이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에는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 군수님들께서 인재개발, 사회소통, 사회복지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 위해 바쁘심에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축하와 더불어 앞으로 지방행정부문에서 지자체가 더욱 발전해 대한민국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향후에도 인간개발연구원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모범이 되시고 인간경영의 모델이 되는 경영자분들을 많이 찾아내고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숨은 일꾼들, 지자체를 찾아 빛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분들을 축하합니다.



이 현 재
제 20대 국무총리

2017년 12월 21일

제 20대 국무총리 이 현 재



정 순 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순관입니다.

먼저 인간존중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과 자치의 모범사례를 실천하고 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인간개발연구원 장만기 회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는 수출중심, 기계·기술중심, 대량생산의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인간개발연구원은 인간존중, 인간경영의 가치를 과감히 주창했습니다. 오늘 제3회 HDI 인간경영대상은 사람을 경영의 중심에 놓았던 인간개발연구원의 선구자적 지혜가 만들어낸 뜻깊은 시상입니다.

우리사회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이어 밀레니엄 세대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도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와 사회·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잡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간존중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경영이 절실히 필요하고 특히 기업 경영자와 관리자,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늘 최우선에 두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룩한 성과가 우리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대한민국이 인재대국, 인재강국으로 발전하는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초기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상을 하시는 대표님과 시장, 군수님들의 그간의 노고와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정 순 관**

안녕하십니까. 손경식입니다.

42여 년간 대한민국 리더 양성에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과 성장을 이루어 왔던 인간개발연구원이 인간 중심의 경영철학으로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하시는 훌륭한 기업인들을 발굴하고 사회적으로 그분들의 사례를 전파하는 HDI인간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이러한 훌륭한 시상식을 기획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아주 필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장 중심의 경제 원리 덕에 빠른 성장으로 국가경제가 선진국가로 변화하였지만 행복사회로 바뀌어 가는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은 부족하였습니다.

수직적인 명령체계에서 수평적인 시스템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회구조 속에서 그 조직 리더의 인본주의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만 질적으로 높은 성장이 이루어지며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우리 주위의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인, 경영자를 보고 배워서 더욱 철학이 탄탄한 리더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인간개발연구원의 이러한 시상과 노력을 통해서 수상자분들과 훌륭한 경영자분들이 미래세대에게 멘토가 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5년 시작하여 1회부터 올해 3회까지 인간경영의 모델이 되어 수상하신 모든 분에게 축하를 올리며, 앞으로도 인간개발연구원이 훌륭한 리더들의 면모를 찾아내어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잘 수행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손 경 식

CJ그룹 회장

2017년 12월 21일

CJ그룹 회장 손 경 식



● 심사위원

직책	이름	회사
위원장	구건서 회장	사단법인 시니어 벤처협회
위원	가재산 대표	피플스그룹
위원	이금룡 회장	코글로 닷컴
위원	김선화 대표	한국가족기업연구소
위원	염동호 이사장	한국메니페스트 정책연구소
위원	이수경 회장	가정행복코칭센터
위원	이홍민 대표	휴먼이케이션

● 평가자문위원

직책	이름	회사
위원장	김황식	제41대 국무총리
위원	김병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위원	문용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위원	손경식	CJ 그룹 회장
위원	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
위원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前 위원장
위원	유장희	매일경제신문 상임고문
위원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위원	이만의	로하스코리아포럼 이사장
위원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위원	조남철	한인문화진흥원 원장
위원	황우여	前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HDI 프로그램 및 수상자 명단

● 시상식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6:30	집결 및 환담 - 귀빈 영접 / 간담회 / 포토존 촬영	소노펠리체 (3층)
16:50~17:00	축하공연	하만택 테너 외 Trio
17:00~17:30	개 회	정찬우아나운서
	국민의례	
	개 회 사	장만기회장
	심사총평	구건서심사위원장
	축 사	이현재 제 20대 국무총리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17:30~18:30	시 상 식 - 공공기관 부문 - 일반기업 부문	평가자문위원(장) 외 다수
	수상자 소감발표	각 수상자

● 수상자 명단

| 공공기관 |



인재개발부문

서산시
이완섭 시장



사회복지부문

동해시
심규언 시장



혁신성장부문

고흥군
박병중 군수

| 일반기업 |



특 별 상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박재갑 이사장



가치창조부문

광주요
조태권 회장



상생경영부문

(주)모간
박성훈 회장



나눔봉사부문

(주)신일팜글라스
김석문 회장



인재경영부문

준오헤어
강운선 대표이사



지속가능부문

샘표식품
박진선 회장



창조경영부문

시몬느
박은관 회장



서산시 | 이완섭 시장

- 제9대 충청남도 서산시 시장(2014. 07~)
- 제8대 충청남도 서산시 시장(2011. 10 ~ 2017. 06)
- 제8대 충청남도 서산시 부시장(2009. 07 ~ 2011. 01)

서산시는 시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문화를 조성하여 명품교육도시로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고품격 강의로 평생교육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1세기 환황해권 물류·관광 허브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서산시는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이라는 비전과 함께 「역동적인 도약! 희망찬 도시!」의 슬로건을 기조로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로 발돋움하는 명품교육복지 도시건설을 위해 17만 5천여명의 시민행복과 평생학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다.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서산시 평생학습센터를 개소하여 시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활동 강화, 맞춤형 시민아카데미, 충남형 행복학습 자치학교, 어르신 문해교육 확대, 학점은행제, 길 위의 인문학 등을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명품교육 도시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과 평생학습의 연계망 구축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복지 우선지역 지원, 사칙연산 인재스쿨 운영, 스스로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서산시 청소년 진로박람회 운영 등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등 교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과거 포상기록

- 대한민국 글로벌리더 대상(2017)
- 대한민국 소비자대상(2017)
- 도전 지방자치단체장 대상(2016)
- 창조경영인 대상(2016)
-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2015, 2016)
- 대한민국창조경제대상(2015)
- 도전한국인상(2014)



동해시 | 심규언 시장

- 제17대 동해시장(2014. 07 ~)
- 제22대 동해시청 부시장(2011. 07 ~ 2014. 02)
- 행정지원국장(2008. 07)



동해시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보통사람이 대우받는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공직사회 내부개혁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고착된 불법을 개선하고 소통과 공감으로 불평 불신을 불식시켰다. 그리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운영을 위해 시민불편의 바로처리를 위한 각종 시책을 운영,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신뢰 행정을 펼치고 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받는 동해시청을 위해 민원서비스 환경의 질적개선,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의로 탈바꿈을 위한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 눈앞의 성과보다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특경제층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 대우받는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늘 문제시되던 무릉계곡 상가의 환경을 정비했고, 천곡시가지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돌려줬으며 주정차 문제는 물론 불법노점 등 시가지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요소들을 개선하며 그 중 야기되는 불편함은 이해당사자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했다.

시민이 머물고 싶은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시의 채무를 절반이상 줄이고 주민세 현실화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확보했다. 섬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 대폭 감소와 가로·보안등 LED 전면교체에 따라 전기료 절감 등은 재정자립도 증가에서 보여주듯 재정건전성이 향상 되어 시민중심의 경제시책으로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수십년간 숙원사업이었던 묵호항 보안구역 해제 및 재창조사업 착공,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수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수산물 직매장 건립 등 수산 경쟁력, 자립어업 등 역량강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로 생산성 향상, 구제역과 인플루엔자 차단으로 청정 동해 농축산물 지역 이미지와 경쟁력 증대되었다.

과거 포상기록

- 홍조근정 훈장(2014)
- 대통령 표창(2010)
- 국무총리 표창(1999, 2005)



고흥군 | 박병중 군수

- 제6대 전라남도 고흥군 군수(2014. 07 ~)
- 제5대 전라남도 고흥군 군수(2010. 07 ~ 2014. 06)
- 제4대 전라남도 고흥군 군수(2006. 07 ~ 2010. 06)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지형으로 아름다운 해안선과 점점이 떠 있는 239개의 섬을 보유한 고흥은 세계 13번째 우주발사체 기지인 나로우주센터를 비롯하여 항공 센터, 우주과학관, 고흥후주천문과학관, 고흥청소년우주센터, 고흥우주발사전망대 등 우주항공 연관시설들이 집적화 된 명실상부한 우주항공 중심도시이다.

‘하이 고흥 해피 고흥 11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흔들림 없는 군정기조와 빈틈없는 추진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해 지역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 고흥’,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전국 최고의 농수산물생산지 고흥’ 등의 대내외적인 이미지 정착으로 고흥 발전의 청신호를 밝혔다.

특히, 고흥은 국가 성장동력으로서의 우주항공과 녹색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주기술 특화단지 및 해양융복합 소재산업 등을 비롯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폐석산을 활용한 ‘거금에너지테마파크 조성’, ‘그린솔라 마을’, ‘녹색에너지 505프로젝트’ 등으로 연간 100억 원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그 외에도 농수축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체계 확립, 지역자원을 활용한 테마파크 관광 기반 구축, 지역의 역사와 문화 미래가치 창출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과거 포상기록

- 인권부문 『2015 대한민국 한센인상』(2015)
- 올해의 군수 부부상 『2015 올해의 부부상』(2015)
- 2013 대한민국 혁신 한국인 대상(2013)
- 2013 최우수 자치단체장 선정(2013)
- 환경100인 선정 (2012)
-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한국 지식경영인 대상』(2012)



특 별 상

HDI 일반기업 수상자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박재갑 이사장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국립암센터 원장 역임
- 국립중앙의료원 초대원장



박재갑 교수는 금연전도사로 통한다. 국립암센터 원장 시절 금연운동을 주도하고 담배 판매 중지를 위한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걸었던 일은 특히 유명하다. 방승에서 흡연 장면을 퇴출시킨 것을 가장 보람된 기억으로 꼽는 박재갑 교수는 금연을 위해 연구자료, 학술논문,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고 세계금연의 날 WHO 금연공로상을 수상했다.

서울의대 교수 시절인 1982년부터 생명과학연구의 필수 소재인 세포주를 한국인으로부터 수립하고자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수립된 다양한 SNU(Seoul National University)세포주들을 특성분석과 함께 학술지에 보고하여 왔다. 1987년부터는 수립된 SNU세포주들을 기반으로 한국세포주은행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1년에는 한국세포주은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공익재단법인 한국세포주연구재단을 설립하였고 과학기술처(현,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을 하였다. 1993년에는 한국세포주연구재단이 UN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부다페스트조약상의 ‘국제특허미생물기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내외 특허출원을 위한 특허세포주기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세포주은행은 과학적인 품질관리를 통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양질의 세포주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광주요 | 조태권 회장

- 광주요 최고경영자
- 대우 그리스지사장
- (주)가온소사이어티 대표이사
- (주)화요 대표이사

조태권 광주요 회장은 조선 왕실에서 쓰는 도자기를 구워내던 관청 직영 가마인 관요(官窯)의 맥을 이은 선친의 뜻을 이어 1988년 광주요를 가업으로 승계했다. 가업 승계 이후 조태권 회장은 도자기가 유명한 나라의 음식과 술이 우수함을 알게 되고 한국 식문화의 고급화와 가치의 다양화를 숙명으로 여기게 된다.

1997년 성북동 자택에서 시작된 한식 만찬은 각국 대사, 사회 지도계층, 오피니언 리더 등을 초청해 코스로 풀어낸 우리 한식과 그 한식을 담아내는 전통 도자기의 가치를 창조하였고, 까다로운 상류층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고급 한식의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이후 한식의 새로운 가치의 실현을 꿈꾸며 선진 음식 문화를 보유한 각 국에 셰프들을 꾸준히 유학을 보내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고급 한식에 어울리는 고급 술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고급 증류식 소주 화요를 출시하여 ‘음식, 도자기, 술’이라는 고급 식문화의 삼위일체를 완성했다.

조태권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최고급 한식당 ‘가온’ 과 ‘비채나’ 를 오픈하여 한식세계화에 정면 승부수를 띄웠고 그 결과 2017년 미쉐린 가이드 서울편에서 가온은 전 세계 120여 곳밖에 받지 못한 최고등급 별 세 개를, 비채나는 한 개를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에 조태권 회장은 도전정신과 온고지신의 철학으로 한국의 식문화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



상생경영부문

HDI 일반기업 수상자

(주)모간 | 박성훈 회장

- (주)모간 대표이사 회장
- (주)가람 대표이사
- 가람카본(주) 대표이사



(주)모간은 카본과 세라믹단열재, 전기산업용 모터, 반도체 사업부 등으로 나누어 예산부터 실적, 성과보상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사업부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문성의 극대화, 효율적인 인적관리로 오늘날 (주)모간의 성장 원동력이기도 하다.

"회사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직원들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하는 박성훈 회장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경영인으로써의 자기 관리, 나아가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상을 만들기 위해 투명경영을 강조하여 설립 이래 현장 직원들까지 경영실적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개하고 있다.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사협력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하고 분기별로 대표자와 생산현장 간부들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 및 실천여부를 점검, 평가하고 있으며, 제안제도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직무동기를 부여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포상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모간은 창립 후 30여년 동안 단 한번의 노사분규도 없을 만큼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박성훈 회장은 지역사회와 학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07년 서울대학교 장학빌딩 건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발전기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에 기부하였다. 범죄예방위원 성남지역 활동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세라믹학회에도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또한 은행나무장학재단, 장애인협회와 유니세프 등에 매년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1992년에 대한내화물공업협동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하며 업계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합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내화물업계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2011년부터는 조합 이사장으로서 조합발전을 위해 선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주)신일팜글라스 | 김석문 회장

- (주)신일팜글라스 회장
- (주)H.K.P 법인 설립
- (주)신일유리 대표이사

김석문 회장은 의료용기 전문 생산업체인 (주)신일팜글라스를 설립하여 한 발 앞선 최첨단 설비를 도입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인적교류 및 기술교류를 통하여 기업을 글로벌을 이루었다.

끊임없는 직원 교육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했고 특히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여성 인력을 적극 양성하여 여성가족부와 공주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로부터 여성친화기업 및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더불어 김석문 회장은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에 학교설립을 위해 수년 전부터 부지와 학교 건축 등을 교회와 선교사를 통해 지원하다가 2017년 2월 브라이트 엔젤스 아카데미를 설립 개원하였다. 또한 심향재단을 설립하여 국내외 취약계층에 학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케냐에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과 생활지원을 통한 참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송파에 있는 건물을 재단에 기증하여 정기적인 후원을 위한 노력과 함께 기업인들에게 아프리카 후원을 홍보하며 장기적인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인재경영부문

HDI 일반기업 수상자

준오헤어 | 강운선 대표이사

- 준오헤어 대표이사
- 한성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 경북대학교 겸임교수
- 서경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준오헤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미용인 양성을 위해 핵심인재양성, 현장위주 교육프로그램, 고성과 창출 교육 등을 구축했다. 준오헤어의 강운선 대표는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성공의 자리에 이르러 최고가 되기 위한 과정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미용업계에서 최초로 미용전문 교육기관인 준오아카데미를 창립했다.

또한 고객을 만나는 점점인 직원을 먼저 만족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여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에 집중했다. 경북대학교와 현장밀착형 교육을 통해 산업협력을 하여 ‘준오헤어디자인과’를 2011년 10월 신설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미용테크닉과 다양한 서비스마인드를 공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필독서를 주어 책을 읽게 하는 강운선 대표는 독서경영을 실천하는 진정한 멘토이다.

“교육이 전부이며 연습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념하에 직원들을 후배로 생각하며 배움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준오헤어의 시스템은 준오헤어가 가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다.



샘표식품 | 박진선 회장

- 샘표식품 대표이사 사장
- 서울상공회의소 상임위원
- 대한상공회의소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올해 71주년을 맞은 샘표는 “내 가족이 먹지 못하는 것은 절대 만들지도 팔지도 않는다.”라는 창업주 박규회 회장의 신념을 지켜오며 국내 간장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구성원의 행복’과 ‘지역사회에 기여’를 핵심가치로 하여 창업주 故 박규회 회장부터 현 박진선 사장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본경영을 이어왔다. 이는 임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과 고유의 업무환경 구축,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71년 간 노사분규와 구조조정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기업이라는 기록을 세우는 토대가 되었다.

샘표는 한국의 발효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우리 맛과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임직원 중 약 20%가 연구 인력이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업계 최고 수준인 4~5%에 이른다. 100% 콩 만을 이용해 만든 전통 한식간장을 세계 최초로 복원하고 대량 양산하는데 성공했으며 콩 발효 기술을 기반한 100% 순 식물성 콩 발효 에센스인 ‘연두’를 개발해 한국적 맛내기 시장을 개척했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 ‘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발효기술은 물론 한국의 발효 음식과 건강한 식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우리맛을 분석하고, 우리맛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우리맛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한 한국 식문화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시몬느 | 박은관 회장

- 시몬느 대표이사 회장
- 시몬느 엑세서리컬렉션 대표이사 회장



1987년 출범한 시몬느는 OEM이나 ODM이 아닌 핸드백 제작의 IDM(Innovative Development Manufacturing: 혁신을 개발하는 제조사)로 불린다. 글로벌 패션업계에서 IDM으로 평가받는 제조사는 여성 속옷을 만드는 홍콩의 레지널 미라클과 시몬느 단 두 회사뿐이다.

박은관 회장이 말하는 시몬느 최대의 자산은 ‘5,800년’이다. 본사에서 380명이 일하는데 정년이 없기에 핸드백 장인 중 환갑이 넘은 분이 14명이다. 박은관 회장의 38년 경력, 입사 2주차된 젊은 직원들의 경력 등을 모두 합치면 5,800년이 된다. 시몬느는 5,800년의 연륜으로 18만 개의 핸드백 패턴과 아카이브를 만들었고 1년에 7천개의 디자인을 개발한다. 해외 명품사가 스케치 100개를 보내와도 98개는 이미 만들어온 18만 개 중 하나이거나 그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박은관 회장은 ‘손의 힘’과 ‘땀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의 리더십은 직원이 일하고 싶은,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경영자는 직원의 지갑과 머리와 가슴을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말로 대신된다.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지갑을 열심히 채워주려 하고 있으며 공부를 원하는 직원을 적극 지원하여 머리를 채워주고 있다. 또한 ‘오피스 캠퍼스’라는 컨셉으로 조성한 실내정원으로 직원들의 가슴을 채워주려 하고 있다.

박은관 회장은 아내의 애칭으로 시몬느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그의 로맨틱하고 공격적인 경영방식으로 시몬느는 18만 개의 디자인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스트럭처, 컬러가 축적되었고 해외파트너들로 하여금 ‘팩토리’가 아닌 ‘풀서비스컴퍼니’로 불리우고 있다.



제1회

HDI 인간경영대상수상자

| 종합대상 |



구 자 관

삼구아이엔씨
책임대표사원

| 상생경영부문 |



윤 동 한

한국콜마
대표이사 회장

| 사회공헌부문 |



최 규 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 인재경영부문 |



이 형 우

마이다스아이티
대표이사

| 사회봉사부문 |



두 상 달

가정문화원
이사장

| 교육부문 |



김 영 철

동화세상에듀코
대표이사 사장

| 특별 상 |



김 병 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제2회

HDI 인간경영대상수상자

| 상생경영부문 |



이 윤 수

KCTC
상임고문

| 사회봉사부문 |



민 남 규

자강산업
회장

| 사회공헌부문 |



강 국 창

동국성신
회장

| 인재경영부문 |



이 병 구

네패스
회장

| 인재교육부문 |



한 재 권

조인그룹
회장

| 특 별 상 |



심 갑 보

삼익THK
상임고문

| 지속기능부문 |



최 양 식

경주시
시장

| 인재개발부문 |



남 유 진

구미시
시장

| 사회소통부문 |



유 두 석

장성군
군수

| 사회복지부문 |



노 현 송

강서구
구청장

Better People Better World

사람 밖에는 없었습니다.
기술도 자원도 너무나 부족했을 때,
우리는 오직 사람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1975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인간자본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 개발을 통한 인간성 회복을
사회적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경영자세미나가 어느덧 2000회를 바라봅니다 .

시대의 리더들과 함께
정치 경제 경영 사회 문화 등
장르를 넘나드는 지식의 향연을
새벽마다 벌여왔습니다.
한국 리더들의 아침문화를 만들어왔다는 자부심으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CEO MEMBERSHIP

- CEO 조찬세미나
- CEO 하계 FORUM
- 테마별 특별세미나
- 기업 친선교류 프로그램
- 정기간행물 발행
- 이종기업동우회
- 골프클럽 인경회

EDUCATION CONSULTING

- 국제 포럼
- 기업 정기교육
- 정기관 정기교육
- 한마음 전직원연수
- 직급별 워크샵
- 직무별 워크샵
- 국내외 선진지견학